

정치 지도자의 형성기 경험이 정책결정에 미친 영향 연구

: 시진핑 집권 시기 청년 농촌하방 계획과
시진핑의 하방 경험 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 채 영**

요약

본 연구는 전기적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시진핑의 전기적 요인이 시진핑 집권 시기 중국에서 전개되는 청년 농촌하방 계획에 미친 영향을 탐색하였다. 하방이라는 시진핑의 전기적 요인은 그가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향촌진흥에 대한 신념과 분투의 정신이라는 특성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시진핑 집권 시기 청년 농촌하방 계획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 '상산하향'을 현대 중국으로 소환하는 당국가의 움직임 아래 향촌진흥과 청년 인재대오 건설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전기적 요인을 통해 형성된 시진핑의 신념과 특성은 각각 향촌진흥을 위한 농촌에서의 봉사와 기층에서의 단련이라는 두 가지 서사를 통해 시진핑 집권 시기 청년 농촌하방 계획을 지원하고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주제어: 정치 지도자, 정치사회화, 전기적 내러티브, 청년 농촌하방 계획, 상산하향 운동

*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연구보조원, cyyyyun@gmail.com

I. 문제제기

시진핑 집권 시기 중국에서 청년사업은 국가 계획의 중심에 위치한 다. 2017년 4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신중국 성립 이후 최초의 국가급 청년분야 특별계획인 《중장기 청년발전규획(2016-2025년)(中长期青年发展规划(2016-2025年))》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 4월에는 신중국 성립 이후 최초의 청년백서 《신시대 중국청년(新时代的中国青年)》이 발간되었다.

이러한 시진핑 집권 시기 청년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도시 청년들을 농촌으로 내려보내는 ‘청년 농촌하방’ 계획이 당국가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시진핑 집권 이래 10년 동안 중국에서 농촌으로 귀향한 창업자 수는 총 1,220만 명에 달하며(新浪网 2023/02/17) 최근 광둥성 정부는 2025년 연말까지 성 내 청년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내는 3개년 행동을 발표한 상태다(人民网 2023/02/21).

시진핑 집권 이래 중국 정부가 이토록 적극적으로 청년 농촌하방을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국내 기존 연구에서는 청년 농촌하방 계획 가운데 ‘대학생 촌관(大学生村官)’ 정책에 주목하여 그 추진 목적을 경제사회적 측면에서의 대졸자 취업난 완화(유은하 2012; 송용호 2014; 2016) 및 도농 간 소득격차 완화(송용호 2014; 2016), 정치적 측면에서의 당 기층조직 강화(유은하 2012; 송용호 2014; 2016) 및 당 간부 육성(송용호 2014; 2016)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 내 기존 연구 역시 이러한 결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향촌진흥과 같은 국가 차원의 과제가 추진 목적으로 보다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王兆萍 외 2012; 张龙 외 2021).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들은 중국의 전체적인 국정(國情)에 기반한 설명으로서 시진핑 집권 시기 청년 농촌하방 계획 추진 배경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는 분석 초점이 ‘대학생 촌관’ 정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청년 농촌하방 계획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것이 시진핑 집권 시기 대폭 확대되어 전개되는 이유에 대한 온전한 설명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 초점을 정치 지도자 시진핑이라는 행위자로 전환하여, 그의 전기적 요인(biographical factors) 분석을 통해 시진핑 집권 시기 청년 농촌하방 계획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시진핑의 ‘동기’를 파악하고자 한다. 행위자 시진핑에 대한 주목은, 정치적 신념이나 정책 아이디어 분석을 통해 정치지도자가 정책문제 채택과 정책대안 개발 및 선택과정에서 수행하는 행위의 동기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주재현 1998, 290) 시진핑 집권 시기 급속도로 확대 전개되고 있는 청년 농촌하방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시진핑 집권 시기 청년 농촌하방 계획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지점은, 이것이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맥락에 말미암은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시진핑 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국가의 과거, 상산하향 운동(上山下乡运动)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이다. 시진핑은 문화대혁명의 정치적 격변에 휩쓸려 15세이던 1969년 산시(陝西)성 옌촨(延川)현의 량자허(梁家河)대대로 하방하여 농촌에서 약 7년의 세월을 보냈던 지식청년(知識靑年) 출신 지도자로서, 상산하향 운동은 시진핑의 형성기(formative years) 정치사회화에 영향을 미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¹⁾

시진핑 역시 국가주석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과거 하방 경험을 언급하며 이것이 지도자로서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고

1) 2012년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선임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 중 시진핑을 제외하고 하방 경험이 있는 리커창(李克強), 왕치산(王岐山), 장더장(張德江)의 하방 기간은 모두 3년 미만인 데 반해, 유일하게 시진핑만이 7년의 하방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방 기간이 6년을 초과할 경우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된다는 점에서(Zhou et al. 1999), 시진핑의 하방 경험이 그의 가치관 정립에 영향을 미쳤음을 추론할 수 있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상산하향 서사는 형성기 경험의 영향 자체에 대한 주목보다는 그의 정치적 자본(Bonnin 2016)이자 이데올로기적 목적에 근거한 세대동원 전략(Xu 2021)으로, 시진핑의 정치적 이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방 당시 농촌에서 젊은이들이 직면했던 혹독한 환경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든다는(Brown 2016) 비판적 시각에서 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래 중국에서는 시진핑의 하방 경험을 엮은 《시진핑의 7년 지식청년 세월(习近平的七年知青岁月)》이 출간되고 하방 장소인 량자허촌의 토굴이 홍색 관광지로 변모하였으며 상산하향의 재현으로 평가받는 청년 농촌하방 계획이 당국가에 의해 적극 추진되는 등, 시진핑의 하방 경험은 단순한 수사(rhetoric)를 넘어 현실 사회에서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서사에 내포된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농촌 하방이라는 전기적 요인이 시진핑 개인에 미친 영향에 대한 주의를 촉구한다.

다수의 기존 연구에서는 시진핑의 집권을 전후하여 하방 경험이 지도자로서의 그에게 미친 영향에 주목한 바 있다. 리청(Li 2009)은 시진핑을 포함한 지식청년 세대 지도자들이 하방 경험을 통해 인내력, 적응력, 선견지명, 겸손과 같은 특정한 능력을 기르고 중국의 농촌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귀 바오강(Guo 2010)은 2010년 당시 중국 지도부에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17차 당대회에서 상산하향 운동을 경험한 지식청년 출신 시진핑과 리커창이 선출된 것임을 강조하며, 하방 경험을 통해 이들이 농촌 지역의 빈곤을 목도하며 이를 견뎌야만 했다는 점에 주목한다(Guo 2010, 56-59). 덩둥(丁東 2013)은 시진핑이 형성기에 기층으로 내려가 농촌의 빈곤과 낙후된 환경 등 가장 진실된 중국을 볼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들 기존 연구는 하방이라는 전기적 요인이 그의 개인적 특성 및 농

촌에 관한 문제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것이 현대 중국사회에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추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공백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시진핑의 전기적 내러티브(biographical narrative)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하방이라는 그의 전기적 요인이 시진핑 집권 시기 청년 농촌하방 계획에 미친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정치 지도자의 정책 결정에 미친 형성기 정치사회화 경험의 설명력을 탐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및 연구방법

1. 정치 지도자의 형성기 정치사회화와 그 영향

정책 결정에 미치는 정치 지도자 개인의 영향은 비교정치의 맥락에서 오랜 기간 주목받아왔던 주제로(Goemans et al. 2009, 269), 독재국가와 민주국가를 불문하고 다수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은 개별 지도자의 역할에 상당한 수준의 인과적 중요성을 부여한다(Levy 2013, 301; Greenstein 1975; 1992, 108; Hart et al. 2014). 개별 정치 지도자 연구는 과거 진영 간 이념 대립이 극심하던 냉전 시기 서구의 행태주의자들에 의해 소련 등 공산권 정치 지도자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으며(Leites 1951), 민주국가 지도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는 데에도 적극 활용되었다(Greenstein 2009; Burns 2012).

정치 지도자 분석에서 지도자의 ‘형성기(formative years)’²⁾ 경험은

2) 형성기 개념을 제시한 독일의 사회학자 칼 만하임에 따르면, 개인은 일반적으로 17-25세로 정의되는 형성기 경험에 의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자신의 최초 인상(fresh contact)을 결정하게 되며, 이는 이후 생애과정에서 쉬이 변하지 않는 낙인이 된다. 즉, 인간의 나머지 삶이 설령 어린 시절에 획득한 자연적 세계관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초기 인상의 결정적인 영향은 여전히 현저하다(만하임 2020, 62).

지도자 개인이 정치적 결과에 미치는 인과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유용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Horowitz et al. 2014). 이는 형성기 경험이 개인의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Niemi et al. 1977, 224). 형성기 경험은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이후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독특한 정치적 태도와 신념(Bartels et al. 2014), 정치적 전망(Markus 1983, 723), 정치적 정향(Greenstein 1970)을 형성한다. 다시 말해, 정치 지도자의 형성기 경험은 이들이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해석하도록 사회화되는지에 영향을 준다는 점(Dittmer 2020, 261)에서, 이후의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는 것이다. 형성기에 형성된 정치적 정향은 이후에 일정 정도 수정될 수 있으나, 초기 사회화 경험의 낙인 효과는 이후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된다(Markus 1983, 723; Greenstein 1970).

이때 ‘역사적 사건’은 형성기 경험이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성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형성기에 경험한 역사적 사건은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 외부의 사회 현실에 대한 지식의 결정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후의 삶에서 유독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Griffin 2004, 545). 형성기에 경험한 역사적 사건이 경제적 변화, 전쟁, 기술 혁신, 그리고 사회-정치적 변동과 같은 대격변일 때 이것이 형성기의 개인에 미친 영향은 이후의 삶에 걸쳐 지속된다고 가정되며(Rogler 2002; Schuman et al. 1989),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개인에게 더욱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Gimpel 2003, 171).

특히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정권의 맥락에서 정치 지도자가 지닌 형성기 경험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선거가 부재한 중국에서는 60대 혹은 심지어 70대 초반에 정상에 오르는 최고 지도자들이 정치적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 과거에 축적한 경험

을 더욱 활용하게 되며,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들과는 달리 이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Gore 2020, 16).

2. 연구방법: 전기적 내러티브 분석

정치 지도자의 귀속적 특성이나 사회화 경험으로 대표되는 전기적 요인(biographical factors)은, 정치 지도자 분석의 주요 분석대상으로서(Blondel 1987), 지도자의 신념과 가치, 특성 등을 정립함으로써 후일 지도자가 특정한 정책적 선호와 우선순위, 정책적 의제를 추구할 동기를 형성한다(Krcmaric et al. 2020, 133).

전기적 요인에 기반한 접근법의 기본 전제는 정치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과 과거의 경험이 그들의 현재 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하는 것이다(Krcmaric et al. 2020, 135). 그리고 지도자들이 일정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제도에 대한 지도자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전기적 변수의 설명력이 증가한다고 본다(Blondel 1987; Krcmaric et al. 2020, 133). 따라서 지도자 개인에 미치는 제도적 견제와 균형(institutional checks and balances)의 영향이 민주주의 국가보다 약하기 때문에(Horowitz et al. 2014) 정치 지도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권위주의 국가(Horowitz et al. 2005; Greenstein 1975)에서, 정치 지도자가 지닌 전기적 요인의 설명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Hart et al. 2014).

정치 지도자의 내러티브는 지도자의 전기적 요인 분석을 위한 주요 질적 자료가 된다(Janson 2008). 글로 적히거나 출판된 지도자의 전기, 자서전, 언론 인터뷰 등 자료 외에도 모든 생애 이야기는 전기적 내러티브(biographical narrative)로 간주될 수 있다(Shamir et al. 2005, 14). 이러한 기록들은 정치 지도자의 전기적 경험이 그들의 통치행위 혹은 세계관에 미치는 인과관계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Krcmaric

et al. 2020, 133). 만일 분석 대상이 최고 지도자인 경우 질적자료 확보가 보다 용이하다(Krcmaric et al. 2020, 133).

한편, 정치 지도자의 내러티브는 그들의 정체성, 특성, 가치, 신념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지도자들은 이러한 내러티브를 통해 그들의 리더십과 그들이 지닌 집단 및 가치를 대표할 권리를 정당화한다(Shamir et al. 2005, 15). 이처럼 자신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정치 지도자는 일관성 있는 인생 이야기 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 영역을 더욱 강조하고 다른 영역을 무시하거나 숨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Shamir et al. 2005).

이러한 지점에 주의한 비판적 접근의 일환으로 샤미르(Shamir et al. 2005)는 정치 지도자의 내러티브를 그의 인생 그 자체가 아닌 인생을 분석하는 텍스트로 인식할 것을 제안한다(Shamir et al. 2005, 16). 샤미르의 관점에 따르면, 지도자의 전기적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사건과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지도자의 발전에 실제로 기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생애 이야기에 등장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사건과 경험이 곧 자아와 리더십에 대한 지도자의 개념을 반영하기 때문이다(Shamir et al. 2005, 16-17). 따라서 정치 지도자의 전기적 내러티브 분석에서는 사건이나 경험 그 자체보다 해당 지도자가 사건과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가 더욱 중요시된다(Shamir et al. 2005; Janson 2008).

지도자가 강조하는 과거 삶에 대한 내러티브는 그들의 행위 동기를 파악하고 향후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데, 이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자존감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기부여되므로 자신이 구축한 특정한 발전 내러티브를 추종하게 되기 때문이다(Janson 2008, 88). 그 결과로서, 지도자의 내러티브는 단순히 이미지 구축을 위한 선전 용도뿐만 아니라 실제 정치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현실이 된다(Shamir 2005).

Ⅲ. 시진핑의 전기적 요인: 상산하향 운동 참여

1. 형성기의 하방 경험과 정치사회화

시진핑은 15세였던 1969년 1월 산시(陝西)성 옌촨(延川)현 원안이(文安驛) 인민공사 량자허(梁家河) 대대로 하방하여 1975년 10월까지 약 7년간의 농촌 생활을 경험하였다. 1953년 6월 베이징(北京)에서 태어난 시진핑은 본래 혁명간부 집안 출신으로서, 그의 아버지 시중쑤(习仲勋)은 산베이(陝北)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혁명원로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을 몇 년 앞둔 1962년 아버지가 류즈단(刘志丹) 사건³⁾으로 인해 실각함에 따라 문화대혁명 발발 당시 시진핑의 출신은 반동분자 자녀(黑帮子女)로 분류된다.

이는 시진핑이 노홍위병(老红卫兵)이 다수 포진한 라오싼지에(老三届)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홍위병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1968년 12월 상산하향 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마오쩌둥의 지시가 발표된 직후인 1969년 1월 곧바로 하방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반동분자의 자녀라는 계급배경에 따른 정치적 압박으로 하방하였던 시진핑의 심정은, 당시 상황에 관한 그의 회고에도 잘 나타나 있다. 시진핑은 베이징에서 옌안(延安)으로 향하는 기차가 출발하기 전 자신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1969년 1월 모두가 울고 있었어요. 기차 안에 울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 나 홀로 웃고 있었어요. ... 당시 친척들이 나보고 어찌 웃느냐고 물었는데, 나는 내가 가지 않는 것이야말로 올 일이고, 안 가면 여기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나조차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人民网

3) 1962년 연재가 시작된 전기소설. 연재와 동시에 반당소설(反黨小說)로 고발당해 이에 연루된 다수의 공산당 고위간부가 박해를 받았다.

4) 문화대혁명 초기 3년인 1966-1968년 중학교 졸업생을 일컫는 표현

2015/02/14).”

당시 시진핑이 느꼈던 불안과 무력감은, 아버지의 실각으로 인한 계급배경의 악화 이외에도 당시 문화대혁명에 따른 특수한 정치적 환경에 놓인 학생들 사이에서 만연하였던 사회적 풍조에 기인한 바 크다. 시진핑이 하방을 갈 무렵 중국에서 학생들은 정치 캠페인을 일종의 시험이자 그들의 도덕성을 입증할 기회로 간주하였는데, 특히 시진핑과 같이 좋지 않은 계급배경을 가진 청년들에게 이러한 기회들은 정치적 자본을 축적하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Gold 1991, 600). 계급배경이 홍오류(红五类)가 아닌 지식청년이 중요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 수행, 정치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지도자로서의 역할 수행, 공식 이데올로기의 고수와 같이 계급배경이 좋은 지식청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것이다(Xu 2021, 51).

따라서 계급배경의 열세로 인해 홍위병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시진핑은, 자신이 그들보다 더욱 ‘붉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저 마오쩌둥에 대한 헌신을 드러내어 살아남는 수밖에 없었다(Dittmer 2020, 260). 계급배경이 좋지 않은 지식청년들이 당시 느끼던 압박감은 시진핑과 함께 하방을 경험한 베이징 지식청년 아이핑(艾平)의 회고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시절, 우리는 다 반동자녀로 취급받았으며 개자식(狗崽子)이라고 욕을 먹었어요... 마오쩌둥 주석이 ‘지식청년은 농촌으로 가서 빈하중농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지시를 하달한 후, 우리 중학생들은 지식청년 객차에서 함께 산베이 지방으로 하방을 갔어요. 당시, 국가 경제는 이미 붕괴 직전에 있었고 학교는 수업을 중단하고 혁명을 독려했으며 대학에서는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았고 공장에서도 신입 직공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으로 하방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 방법이

있어요... 후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날의 정경을 회상하며 당시 모두가 울었음에도 그는 도리어 웃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 말이 매우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 당시 최악으로 치닫는 가정 내 상황으로 인해 베이징을 떠나고 나니 오히려 정신적 압박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共产党员网 2017/03/10).”

즉, 상산하향 운동에 참여하여 혁명근거지인 옌안의 량자허촌에서 형성기를 보내는 것은 아버지의 실각이라는 개인적 사정과 당시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어우러져 만들어 낸 15세 시진핑의 유일한 선택이었다. 이때 하방 장소인 량자허촌은 시진핑의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하방에 따른 정규 교육과정의 단절을 대체하는 학교로 기능하였는데, 이는 후일 자신이 ‘량자허’라는 고등학교와 ‘량자허’라는 대학을 다녔다(新华网 2021/05/01)고 공언하며 량자허촌을 자신의 ‘인생교실’(人民网 2015/02/14)이자 ‘큰 학문이 있는 곳’(新华网 2015/02/14)으로 정의하는 시진핑의 서사에서도 분명하게 관찰되는 지점이다.

량자허촌에서 진행된 정치사회화의 구체적인 흔적은 량자허촌과 자신의 정치적 토대 형성, 즉 정치사회화 과정을 연결하는 시진핑의 인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베이의 고원은 나에게 하나의 신념을 주었고, 그 이후의 인생궤적을 운명적으로 결정했다고 할 수 있다. 산베이라는 인생교실을 거치면서 내가 앞으로 하게 될 것이 무엇이든 산베이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人民网 2015/02/14).”

“하방 이후 우리가 하방 전에 알던 지식이 승화되고 정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자신이 환골탈태한 느낌입니다. 만약 이후 우리가 어떠한 참된 지식과 명철한 견해를 얻거나, 성숙해져 성공을 하거나, 민정(民情)에 통통하거나 실제에 다가섰다고 한다면, 이는 모두 하방 경험에서 비롯되었고 하방 경험으로부터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人民网

2015/02/14).”

위 서사에서는 시진핑이 하방 경험을 인생의 결정적인 분기(分岐)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진핑의 인식에서 량자허춘은 이후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념을 형성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으며 하방 이후 축적한 지식과 경험의 원천이 된 정치사회화의 요람으로 정의된다. 지도자의 내러티브 분석에서는 사건이나 경험 그 자체보다 지도자 자신이 이러한 경험에 부여한 '의미'가 더욱 중요시된다는 점에서(Shamir et al. 2005, 64), 하방 경험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시진핑의 서사는 그의 형성기 정치사회화 경험 이후의 정치적 결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주의를 촉구한다.

2. 정치사회화를 통해 형성된 신념과 특성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정치사회화 과정이 어떠한 신념과 특성을 배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전기적 요인이 이후의 정치적 결과로 이어지는 보다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발견하고자 한다. 전기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신념과 특성은 지도자의 세계관을 형성함으로써 이후의 정책적 선호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Krcmaric et al. 2020, 133).

(1) 신념: 향촌진흥에 대한 정치적 지향

“나라는 사람은 이곳을 떠났지만, 나는 이곳에 내 마음을 남겨 두었다. 량자허에 있던 시절에 이미 나는 향후 기회가 생겨 정치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인민에게 이로운 일들을 하고자 했다(新华网 2015/02/14).”

“상산하향 경험은 인민군중의 힘과 이들의 근본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진정으로 민중과 사회를 이해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

습니다. 내가 지닌 실사구시적 생각은 모두 이 시기에 뿌리내린 것으로서 이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매순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평안한 생활을 추구하는 인민들의 바람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新华网 2017/03/19).”

시진핑의 하방 경험은 그가 향촌진흥에 대한 신념을 품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신념은 ‘량자허’로 표상되는 농촌에 대한 깊은 향토의식에 기초한다. 2004년 저장성 당서기 시절 옌안TV와의 인터뷰에서 7년간의 하방 경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한 질문을 받자, 시진핑은 량자허에서 떠나는 광경을 회상한다.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예를 들자면 역시 내가 떠나는 순간이었지요. 량자허에서 떠나는 순간 7년 동안의 희노애락이 마지막 순간 량자허 군중과 나의 애뜻한 이별로 이어졌어요... 전날에 늦잠을 자고 아침에 문을 열었더니 밖에는 마을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내가 안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던 것이지요. 나는 그 순간 눈물을 흘렸는데, 아마도 그게 내가 옌안에서의 하방 시절 두 번째로 운 것이었을 겁니다. 7년 동안 저는 두 번 울었어요(人民网 2015/02/14).”

이처럼, 시진핑은 정치적 격변에 휩쓸려 내려온 15세의 자신을 품어준 농촌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누차 드러낸 바 있다. 2008년 양회(两会) 기간 산시(陝西)성 대표단 업무보고 심의에서는 “나는 옌안에서 입당하였으며, 옌안은 나를 키워주고 길러주었다. 산시는 나의 뿌리이고, 옌안은 나의 혼이다. 시인 허징즈(贺敬之)가 ‘옌안으로 돌아오다(回延安)’에서 묘사했듯, 나는 ‘꿈에서도 몇 번이나 옌안을 찾았다(几回回梦里回延安)’며, 량자허와 옌안에 대한 깊은 향토의식을 드러냈다(中国共产党新闻网 2015/02/15).

그러나 이러한 향토의식은 결코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후일 시진핑은 하방 초기 자신이 ‘어린 나이에 어쩔 수 없이 농촌에 가게 된 것이었기에 량자허춘을 문화대혁명의 정치적 동란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로 생각하였으며 노동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량자허에 도착하고 몇 달 후에는 다시 베이징으로 되돌아오기까지 했다’고 회상한다(人民网 2015/02/14).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로써 시진핑은 ‘군중과의 융화’를 강조한다. 베이징에서 다시 량자허로 돌아온 이후의 의식 변화에 관해 그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그 순간부터 저는 (하방을) 매우 진지하게 대했습니다. 그 시작은 진정으로 빈하중농에게 재교육을 받았으며, 그들과 융화되어 그들과 가까워지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아도 저는 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우리 마을에 있던 지식청년들이 모두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人民网 2015/02/14).”

즉, 시진핑의 향토의식은 기층의 군중과 융화되고 향촌에 대한 이해를 기르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량자허춘과 마을 사람들에 대한 시진핑의 사고가 점차 전환되어 가는 과정은 그의 또 다른 회고에도 잘 드러나 있다.

당시 나는 옌안에서 트럭을 타고 옌완현에 갔고, 옌완에서 또 트럭을 타고 원안이 공사에서 하차하여 15화리(华里)를 더 걸어 마을에 도착했다... 밤에 마을 도랑가에 나가 보니, 100제곱미터도 안 되는 대평면의 야오둥에 별처럼 빛나며 떠 있는 등유 불빛을 보면서 나는 ‘이는 산정동인(山頂洞人)의 삶이 아닌가?’라며 아주 건방진 한마디를 던졌다. 당시 나는 그곳에 적응이 안 되었고 거리감을 느꼈으나 나중에는 백성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마지막에 나는 그들에게 존경할 부분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央广网 2016/10/13).

이처럼 군중과의 융화를 통해 배태된 시진핑의 향토의식은, 농촌 빈곤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을 형성함으로써 점차 향촌진흥에 대한 정치적 지향으로 구체화된다. 2015년 9월 미국 시애틀을 방문한 시진핑은 같은 해 춘절 량자허 방문을 통해 확인한 ‘량자허의 현재’와 과거 하방 시기 경험한 ‘량자허의 과거’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에 빗대어, 농촌 빈곤에 대한 문제의식과 향촌진흥에 대한 정치적 지향을 매우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1960년대 말 겨우 10대였던 나는 베이징에서 중국 산시성 량자허라는 작은 마을로 하방하여 농민으로 7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당시 나와 마을 사람들은 모두 토굴에서 살며 구들바닥에서 잤는데, 마을 사람들의 생활은 매우 가난해서 몇 달 동안 고기 한 점 먹지 못하곤 했습니다. 나는 마을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압니다… 나의 한 가지 바람은 마을 사람들이 고기로 한 끼를 자주, 배불리 먹는 것이었으나 이는 당시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춘절에 나는 이 작은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량자허에는 아스팔트 도로가 생겼고 마을 사람들은 벽돌집에 살며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기본적인 양로 서비스를 누리고, 마을 주민들에게는 의료보험이 있으며, 아이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당연히 고기를 먹는 것쯤은 별일이 아닙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중국의 꿈이 인민의 꿈이며, 반드시 행복한 생활에 대한 인민의 갈망과 결합하였을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하였습니다(中国共产党新闻网 2015/09/24).”

“하방 경험은 나로 하여금 가난한 민중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정을 갖게 했다. 지금은 생활 환경이 개선되었으니 마음속으로는 빈곤지역 민중들이 더욱 염려가 된다(人民网 2014/10/17).”

결과적으로, 하방 경험에서 비롯된 향토의식과 농촌 빈곤에 대한 문제의식은 향촌진흥에 대한 정치적 지향이라는 시진핑의 신념을 형성

했다. 량자허촌에서 도시로 돌아간 이후 시진핑의 행보에서는 향촌진흥에 대한 확고한 정치적 의지가 관찰된다. 시진핑이 지방에 머무르던 1992년부터 2007년까지 15년 동안 그의 이름으로 출간된 저서 7권 가운데, 3권의 정론서와 1권의 사상서를 제외하고 시진핑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3권 연속으로 농업과 농촌에 관한 책을 저술⁵⁾하였다. 이는 집권 이전 시진핑이 가장 중점을 둔 분야가 농업임을 알 수 있게 한다.

(2) 특성: 자강불식과 분투의 정신

“어려움과 고난은 사람의 의지를 단련시킨다. 상산하향 7년의 고된 생활은 나를 크게 단련시켰다. 후일 어떠한 어려움과 직면하더라도 나는 곧바로 ‘당시 그토록 힘든 상황에서도 일을 해냈는데 지금 못해낼 게 뭐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게 됐다(光明日报 2015/03/12).”

하방을 통해 형성된 시진핑의 신념이 향촌진흥이라는 정치적 의제를 추구하게 하는 동기를 형성하였다면, 자강불식(自强不息)과 분투의 정신으로 대표되는 시진핑의 특성은 기층에서의 분투를 통한 그의 리더십 발전 서사를 보여준다.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 당서기로 근무하던 1990년, 시진핑은 하방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희생을 이후 어떠한 정신적 자세로 승화시켰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자연경관을 나는 상산하향 시기에 직접 보고 들었으며 이에 감탄해 마지않았다… 물방울 하나는 마침내 바위를 뚫을 수 있고 물은 결국 승리한다… 물방울은 희생되는 순간 자신의 가치와 성과를 볼 수 없지만, 그 가치와 성과는 수많은 물방

5) 1999년-2002년 사이 시진핑의 이름으로 출간된 농업 관련 도서 3권은 각각 1999년 저서 《현대농업 이론과 실천(现代农业理论与实践)》, 2001년 저서 《중국농촌 시장화건설 연구(中国农村市场化建设研究)》, 2002년 저서 《푸젠성 농촌 시장화발전 모색(福建农村市场化发展探索)》.

울이 용감하게 전진하는 분골쇄신의 태도에서, 그리고 결국 바위를 뚫어낸 성공적 결과에서 나타날 것이다... 모든 이들이 이러한 ‘물방울’, 이러한 희생자일 때 우리는 어떻게 역사적 성공의 계기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할 수 있겠는가? (习近平 1992, 43).”

자신을 바위를 뚫고자 하는 하나의 물방울에 빗대는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하방 경험은 시진핑이 자강불식과 분투의 자세를 익히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위의 서사에서 관찰되는 흥미로운 지점은 분투의 자세가 곧 성공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진핑의 강한 인과적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의 기저에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리더십 발전 원동력을 분투하는 자세에서 발견하고 있는 시진핑의 인식이 존재한다. 2003년 저장성 서기 시진핑은 문화대혁명 당시 상황에 대한 인터뷰 도중 ‘위로부터의 강요에 못 이겨 상산하향 운동에 참여한 지식청년과 자신의 선택에 의해 주동적으로 상산하향 운동에 참여한 지식청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양자 사이에 관계가 있다면, 이는 객체에서 주체가 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역시 확실히 시작은 내가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농촌에 갔어요. 그러나 산베이 지방에서 떠날 때 나는 이미 상당한 단련을 거친 공산당원이 되었죠... 당시 내가 청년일 적, 사회는 결국 일종의 반역적 혹은 비판주의적 경향으로 변해갔어요... 사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욱 성찰하게 되었으며, 결국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고 공산주의적 이상은 위대한 것이며, 평생 우수한 공산당원으로 존재하겠다는 나의 이념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입니다. 이는 결코 어떠한 순조롭고 이상적인 성장 과정이 아닌, 기구한 성장 과정 중에 형성된 것이죠. 그러나 피동적 존재에서 주동적 존재로 거듭난 이 시기의 경험은 견실하게 진정으로 나에게 속한 것이며, 동시에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시련을 견뎌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新浪网 2003/11/14).”

시진핑은 위 인터뷰를 통해 ‘단련’, ‘시련’, ‘기구한 성장 과정’ 과 같은 고난의 서사를 중심으로 하방 초기와 7년이 지난 후의 정신적 자세를 대조함으로써, 상산하향이라는 시련을 극복한 자신이 어떻게 객체에서 주체로, 피동적 존재에서 주동적 존재로 거듭나 현재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지도자들이 인생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왜’ 그리고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는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는 점(Shamir et al. 2005)을 고려한다면, 하방 경험에 관한 시진핑의 발언에는 그의 리더십 발전 서사가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시진핑은 하방을 통해 형성된 자강불식과 분투의 정신이 지도자로서 그의 인생경로를 설정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한다. 2000년 인터뷰에서 시진핑은 자신이 량자허춘에서 7년을 보내고 도시로 돌아온 이후인 1982년에 다시 지방간부로서 허베이(河北)성 정딩(正定)현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밝히며, 하방에 따른 상실을 '분투하는 자세'로 승화시킨 자신의 선택에 관해 설명한다.

“당시 우리 세대 중 어떤 이들은 마침내 도시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문화대혁명 때 충분히 고배를 마셨으니 다시는 손해 볼 수 없다는 마음이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상산하향에 대한 보상심리로 인해 순간순간의 즐거움만을 찾는 데 몰두하였는데, 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문화대혁명 시기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하방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당시의 궁여지책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좋아졌고, 우리를 옥죄던 ‘좌(左)’라는 족쇄가 풀렸으니, 더욱 분투하고 노력하여 일을 잘 해나가야 합니다(人民网 2015/01/09).”

본 장에서는 하방 경험에 관한 시진핑의 내러티브를 검토함으로써 하방이라는 전기적 요인이 그의 형성기 정치사회화의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로서 향촌진흥에 대한 신념과 자강불식과 분투의 정신이라는 특

성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집권 이후 자신의 하방 경험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시진핑의 서사가 단순히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의 수사로 환원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IV. 시진핑 집권 시기 청년 농촌하방 계획과 청년 동원기제로서의 시진핑의 전기적 요인

1. 시진핑 집권 시기 당국가의 상산하향 소환

시진핑 집권 시기 청년 농촌하방 계획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인 상산하향을 현대 중국으로 소환하는 당국가의 작업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상산하향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평가 수정작업은 그 대표적인 예시가 된다. 후진타오 집권 시기인 2011년 6월 인민출판사에서 출간된 《중국공산당 90년 지식문답(中国共产党90年知识问答)》의 ‘지식청년 상산하향 운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챕터에서는, 문화대혁명에 의해 정치운동으로 변질된 상산하향 운동을 부정하고 이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는 데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中共中央党校中共党史教研部 2011, 165).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10년 후 시진핑 2기인 2021년 5월 인민출판사에서 출간된 《당사지식 500문제(1921-2021)(党史知识500问1921-2021)》의 ‘상산하향 운동이란 무엇인가?’ 챕터에서는 상산하향 운동이 ‘많은 지식청년들을 농촌에서 단련시켰고, 이들 중 다수는 역경과 굴곡의 시련을 이겨내고 청춘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 눈물겨운 봉사를 하였다.’, “‘지식청년’은 한 세대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다”며 상산하향의 긍정적 측면을 대폭 강조하는 한편, 그 부정적 결과는 단지 한 문장으로 일축하고 있다(《党史知识500问》编写组

2021, 65). 상산하향 운동이 신중국 성립 이래 가장 논쟁적인 사건 중 하나이며 현재까지도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 수정은 상산하향 관련 담론을 전유하기 위한 국가의 노골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때 시진핑의 하방 경험은 당국가의 상산하향 담론 전유 작업의 소재로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2017년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출판사는 시진핑의 하방 당시 함께 하방을 경험한 베이징 지식청년, 량자허촌에서 시진핑과 가까이 지냈던 마을 사람 등 29명의 회고를 통해 7년에 걸친 시진핑의 지식청년 세월을 집대성한 《시진핑의 7년 지식청년 세월(习近平的七年知青岁月)》을 출간하였다. 동 회고록은 출간 당해 중국 국내 논픽션 부문 판매율 1위를 기록(新浪网 2018/01/10)하며 중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렇듯 시진핑의 하방 경험을 활용한 당국가의 상산하향 소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현대 중국에서 청년동원 기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산시사범대학은 2017년도 가을학기부터 ‘시진핑의 7년 지식청년 세월 읽기’를 국비 교사고육 프로그램의 필수이수 교과목으로 지정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시진핑 총서기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지와 품격을 갖고 닦은 분투 이야기와 기층에 뿌리내리고 인민을 섬기는 소박한 마음을 배우도록’ 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新华网 2018/05/30). 이처럼 청년동원에 활용되는 시진핑의 하방 경험은 국가의 회고록 출간 의도와도 부합한다. 회고록 출간 당해 2017년 공산당원망(共产党员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게재되었다.

지도자로서 시진핑의 성장은 우연이 아니며, 시진핑 사상의 형성에
는 근원이 있다… 지식청년으로서 량자허에서 보낸 7년의 세월은 현재
시진핑 총서기의 국정수행을 위한 새로운 이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
략의 역사적 시작점이자 논리적 출발점이 되었다. ‘시진핑의 지식청년

세월 7년’은 우리에게 청춘의 답을 주고 청년들에게 사상적·인격적 모범을 제시한다. 시진핑의 청년 시절처럼 중국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국정과 민정을 통찰하며 공산당 및 인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이상적 신념과 가치를 바로 세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역사적 금자탑에 후회 없는 청춘을 새길 필요가 있다(共产党员网 2017/08/23).

즉, 현대 중국에서 시진핑의 하방 경험은 지도자로서 그의 성장의 근원으로 정의되는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해석한 ‘청춘의 답’을 제시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국가에 의해 제시된 청춘의 답 가운데 ‘중국 대지에 뿌리를 내릴 것’이라는 문장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시진핑 집권 시기 확대 전개되는 청년 농촌하방 계획과 이를 추동하는 시진핑의 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시진핑 집권 시기 청년 농촌하방 계획과 시진핑의 청년동원 서사

(1) 향촌진흥: 청년의 봉사 강조

향촌진흥은 청년 농촌하방 계획에 참여하도록 청년을 동원하는 시진핑의 주된 목적으로, 그 정책적 배경은 2017년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시진핑에 의해 최초 제시된 농촌정책 ‘향촌진흥 전략(乡村振兴战略)’이다. 향촌진흥 전략은 삼농문제(三农问题) 해결을 위한 농촌정책이라는 점에서 후진타오 집권 시기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社会主义新农村建设)’의 연속선상에 위치하나, 정책의 역점이 자원의 쌍방향 이동을 통한 도농 융합발전에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농촌정책과 구별된다(黄祖辉 2018; 叶兴庆 2018; 张海鹏 외 2018).

시진핑 집권 시기 도농 간 자원의 쌍방향 이동에 대한 강조 경향은 시진핑의 관련 발언에서도 관찰되는데, 시진핑은 “농촌의 인재, 토지, 자금 등 요소가 일방적으로 도시로 유출될 경우 장기적 차원에서 농촌

의 출혈이 극심해져 향촌진흥은 허상이 된다”는 발언(习近平 2018, 395)을 통해 도농 간 자원의 불균형 이동에 관한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인적자원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후진타오 집권 시기 농촌정책인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계획은 농촌으로의 재정투입을 통한 기반시설 건설과 공공서비스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张海鹏 외 2018; 叶兴庆 2018; Ahlers et al. 2009). 문제는 재정이 할당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판단에 의해 발전 가능성이 저평가되는 마을 주민들에 대한 도시 이주 및 취업이 장려되는 등(Ahlers et al. 2009, 41), 상대적으로 농촌 인구의 도시 유출 문제가 소홀히 다루졌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수십 년간 진행된 도시화로 인해 현대 중국에서는 도농 격차가 확대되고 농촌 쇠락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张海鹏 외 2018), 시진핑 2기에 등장한 향촌진흥 전략은 인재를 포함한 도시의 역량을 농촌 발전에 투입(叶兴庆 2018)하겠다는 시진핑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도시화와 역(逆)도시화를 모두 추진해야 하며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이 쇠퇴해서는 안 된다. 도시와 농촌은 상부상조해야 한다”며 도농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재가 농촌 무대에 진출하여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농촌으로의 인적자원 투입 필요성을 역설하는 시진핑의 관련 발언(新华网 2018/03/07)에서도 관찰되는 지점이다.

향촌진흥 전략 출시 이듬해인 2018년 발표된 중앙 1호문건 《향촌진흥 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关于实施乡村振兴战略的意见: 이하 “의견”으로 줄임)》에서는 향촌진흥 전략의 역점이 ‘인재’에 있음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의견”에서는 “모든 사회역량을 결집하여 향촌진흥을 위한 인재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문건 내 독립된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대학 졸업자의 기층(基层) 성장 계획 실

시’, ‘향촌진흥을 위한 전문성 있는 인재 양성’, ‘도시 전문인재의 향촌 진흥 정책 참여 장려책 연구 및 제정’(中国政府网 2018/02/04)과 같이 청년 농촌하방 계획과 연결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시진핑은 향촌진흥을 위한 인재진흥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청년 농촌하방 계획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9년 시진핑은 당 이론지 《치우스(求是)》에 발표한 《향촌진흥을 신시대 삼농사업의 출발점으로 삼자(把乡村振兴战略作为新时代“三农”工作总抓手)》 제하의 기고(新华网 2019/06/01)에서 “향촌진흥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한 거국적이고 역사적인 임무이며… 인재진흥은 향촌진흥의 기초로… 더욱 많은 도시인재가 농촌에서 혁신창업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표현을 통해 사회주의 현대화, 향촌진흥, 인재진흥, 청년 농촌하방 계획을 일직선상에 위치시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따라서, 향촌진흥을 위한 청년 농촌하방 계획의 기저에는 단순히 청년을 농촌으로 보내는 작업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방 이후 기층에 적응하고 자리 잡아 농촌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사상개조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시진핑은 2017년 12월 “인재 모집에 주력하여 각지의 인재가 ‘상산하향’을 통해 향촌진흥에 투신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환경을 조성해, 일부 청년들이 농촌과 농업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신형 직업농민 대오를 형성하고 농업 종사자 구조를 최적화하며 농촌 인구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발언(习近平 2018, 396)을 통해, 청년 농촌하방 계획 시행 과정에서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도록 이들을 사상적으로 개조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시진핑의 의도는 2019년 초 발표된 중앙 1호문건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다. 2019년 중앙 1호문건 《농업농촌의 우선 발전을 견지하여 삼농사업을 완수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坚持农业农

村优先发展做好“三农”工作的若干意见》에서는 농촌 인재진흥을 위한 ‘3농(三农) 작업팀’ 양성이 강조되는데, 여기서의 3농 작업팀은 농업을 이해하고(懂农业) 농촌을 사랑하며(爱农村) 농민을 사랑하는(爱农民) 작업팀을 의미한다(人民网 2019/02/20).

‘후회 없는 청춘(青春无悔)’을 중심으로 청년을 동원하는 ‘향촌진흥을 위한 청년의 봉사’ 서사는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게 된다. 후진타오 집권 시기 시작된 대표적인 청년 농촌하방 계획 ‘대학생 촌관’은 시진핑의 의도가 향하는 주요 동원 대상이 된다. 2014년 시진핑은 기충에서 향촌진흥을 위해 활동하는 대학생 촌관 장광슈(张广秀)에게 보낸 답신(人民日报, 2014/02/14)에서 “대학생 촌관 계획 시행 이래 수십만 명의 대학생이 농촌으로 가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자신의 인생 가치를 실현했다”고 평가하며, “모든 대학생 촌관들이 기충을 사랑하고 기충에 뿌리내려 식견을 넓히고 재능을 길러 농촌발전을 촉진하고 농민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후회 없는 청춘을 일구길 바란다”고 주문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농촌을 사랑하고 농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데 청춘을 바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시진핑의 과거 하방 경험은 그가 청년 농촌하방을 지원하는 주요 논거로 활용된다. 2014년 시진핑은 5·4 청년절을 앞두고 허베이성 바오딩학원 서부지교 졸업생 대표에게 보낸 답신(新华网 2014/05/03)에서 “나는 서부지역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서부의 아이들이 지식을 갈망하고 있으며 서부의 발전에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고 자신의 하방 경험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기충과 인민에게 다가가 공을 세워, 조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청춘의 꽃을 피울 것”을 주문하였다. 위 서신 내용에서 시진핑은 형성기 량자허춘에서의 하방 경험을 통해, 자신이 농촌발전을 위한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시진핑 집권 시기 향촌진흥을 위한 인재진흥 정책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도농 간 인적자원의 불균형 이동에 대한

시진핑의 문제의식이, 그의 전기적 요인인 하방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향촌진흥의 가치를 내건 청년 농촌하방 계획에서 주목을 요하는 지점은, 향촌진흥 전략이 제시된 2017년 이후 청년 농촌하방 계획 역시 ‘전문 인재’라는 특정 집단을 겨냥하고 전개되는 특징적 변화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대학생 향촌의사(大学生乡村医生) 계획은 시진핑 집권 시기 전개되는 전문인재 하방의 대표적 사례이다. 향촌의사 정책 자체는 후진타오 집권 시기인 2003년부터 존재했으나 이것이 청년, 그 중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향촌의사 계획’으로 구체화된 것은 시진핑 2기⁶⁾라는 점에서, 시진핑 집권 시기 청년세대가 본격적으로 향촌진흥을 위한 동원 대상으로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 향촌의사’ 계획은 시진핑 2기인 2020년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의과대학 졸업생의 향촌의사 개업등록신청 면제 허가에 관한 의견(关于允许医学专业高校毕业生免试申请乡村医生执业注册的意见: 이하 “의견”으로 줄임)》을 토대로 2023년 4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중앙기관편제위원회판공실, 교육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5개 부처가 발표한 《대학생 향촌의사 특별계획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实施大学生乡村医生专项计划的通知: 이하 “통지”로 줄임)》에서 공식 등장하였다. “통지”에서는 “시진핑 총서기가 향촌 의료보건 체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중요 지시를 수차례 하달하였다”고 강조함으로써 대학생 향촌의사 정책이 시진핑의 지시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6) 후진타오 시기의 관련 정책문건에는 대학생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2011년 국무원판공청 31호 문건 《향촌의사대 오심화건설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加强乡村医生队伍建设的指导意见)》에는 도시 내 퇴직 의사, 개업의, 의과대학 졸업생의 농촌 근무 장려를 위한 우대정책을 마련한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청년층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향촌의사 육성 차원에서 의과대학 졸업생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생 향촌의사 계획의 토대가 된 “의견”이 발표된 2020년, 시진핑은 의과대학 재학생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식을 통해 관련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한다. 2020년 2월 베이징대학 서우강(首钢)병원에서 실습 중인 티베트대 의과대학 학생에 보낸 답신(新华网 2020/02/23)에서 시진핑은 “졸업 후 인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서 어진 마음과 의술로 인민, 특히 기층 대중을 행복하게 할 것”을 주문하였다. 위 발언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20년 3월, 시진핑은 베이징대학 후원의료대 90년대생 당원에게 보낸 답신(人民网 2021/06/21)에서 “당과 인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청춘의 화사한 꽃을 피우라”고 강조하며 “인민을 위한 봉사 속에서 힘차게 성장할 것”을 주문함으로써 의과대학생의 농촌 하방계획 참여를 재차 독려한다. 이때 시진핑의 언설에서는 ‘기층 대중에의 봉사’가 청년 농촌하방을 독려하는 주요 서사로서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진핑 2기 시행된 과기소원(科技小院) 대학원생 하방 계획 역시 과학기술 영역의 전문인재를 동원하기 위한 청년 농촌하방 계획의 주요 사례가 된다. 2020년 4월 시진핑은 저장성을 시찰하며 “과학기술 및 인재의 상산하향 추진을 통해 도농 융합발전 체제와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가속화 해야 한다”는 발언(新华网 2020/04/01)을 통해, 과학기술과 인재의 농촌하방을 도농 융합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드러낸 바 있다.

과기소원 대학원생 하방 계획은 그로부터 2년 뒤인 2022년 3월 교육부판공청, 농업농촌부판공청, 중국과학기술협회판공청이 공동 발표한 《과기소원(科技小院) 대학원생 양성모델 보급 및 향촌 인재진흥 지원에 관한 통지(关于推广科技小院研究生培养模式助力乡村振兴的通知: 이하 “통지”로 줄임)》에서 공식 등장한다. 향촌진흥을 위한 청년의 봉사는 당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된다. “통지”에서는 과기소원 대학원생 하방계획의 시행목표가 “전문인재가 농촌에서 봉사하

도록 장려하고 다수의 대학원생이 향촌진흥을 위해 공을 세우도록 지도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정책 시행 이듬해인 2023년 5월, 시진핑은 중국농업대학 과기소원 대학원생의 편지에 답신하는 형태로 관련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참여를 독려했다. 과기소원 대학원생 대표가 시진핑에게 보낸 서신에서 ‘향토중국에 깊숙이 들어가니 비로소 무엇이 실사구시이고 어떻게 대중과 연계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으며 젊은이들은 고생을 자처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답신(人民网 2023/05/03)에서 시진핑은 이에 긍정하며 “신시대 중국청년들은 마땅히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학생들이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게 새기고 향촌진흥이라는 큰 무대에서 공을 세워, 농업농촌 현대화 추진 가속화 및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해 청춘을 바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진핑과 대학원생 대표의 서신 왕래에서 관찰되는 흥미로운 지점은, 대학원생 대표가 시진핑에게 보낸 서신 내용이 시진핑이 과거 하방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의 수확으로 강조했던 부분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시진핑은 과거 자신이 “상산하향을 통해 무엇이 실재이고 무엇이 실사구시이며 무엇이 대중인지를 알 수 있었다”고 회상한 바 있는데(光明日报 2015/03/12), 이는 위에서 강조된 과기소원 대학원생 대표의 소회와 일치한다. 자신의 삶에 대한 지도자의 내려티브는 민중이 지도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치며 민중들에게 지도자의 과거 경험과 유사하게 헌신할 것을 암시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Shamir 2005), 시진핑의 하방 서사는 현대 중국 청년의 농촌하방을 강요하는 데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향촌진흥을 목적으로 전개되는 시진핑 집권 시기 청년 농촌하방 계획은 시진핑의 하방 경험에서 비롯된 도농 간 인적자원 불균형 이동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시진핑 2기 농촌정책의 역점

으로 부상한 '인재진흥'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실제로 향촌진흥 전략이 중앙 1호 문건에 최초 등장한 2018년 이후 2023년까지 매해 중앙 1호 문건에서는 인재양성에 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2018년 이전 대비 뚜렷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향촌진흥 전략 대두 이후 시진핑 정부의 인재진흥 강조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년 인재대오 건설: 기층에서의 단련 강조

청년 인재대오 건설은 향촌진흥과 마찬가지로 시진핑이 청년 농촌 하방 계획을 전개하는 주요 목적이다. 이는 일견 앞서 살펴본 목적인 향촌진흥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의 목적을 추동하는 청년동원 서사가 다소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향촌진흥을 위한 봉사’ 서사가 농촌과 기층이라는 장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청년 인재대오 건설을 목적으로 전개되는 청년동원에는 청년의 자기 수양이 보다 강조되는 ‘기층에서의 단련’ 서사가 활용되고 있다.

이때 시진핑은 자신의 과거 하방 경험을 근거로 청년들에게 기층에서 단련할 것을 요구한다. 집권 이듬해인 2013년 5.4 청년절 기념 각계 각층 우수 청년대표와의 좌담회에서 시진핑은 “하방 이후 나는 수신(修身)부터 시작하자는 좌우명을 정했어요. 무지가 부끄러워 더욱 배움을 갈구했지요… 나는 농촌에서 보낸 7년 세월이 결코 시간 낭비였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많은 지식의 기초를 그 시기에 다졌어요. 지금은 환경이 이렇게 좋아졌으니 여러분은 더욱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기층에서의 배움과 성장의 중요성을 청년층에게 역설하였다(人民网 2015/02/14).

이처럼 청년을 동원하는 시진핑의 발언에서 누차 강조되는 ‘기층에서의 단련을 통한 고난 극복’ 서사는, 앞서 3장에서 전기적 요인 검토

를 통해 확인된 시진핑의 특성인 분투의 정신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시진핑은 자신의 하방 시절을 ‘고단한 삶’으로 묘사하며 이를 통해 ‘단련’된 자신이 얻은 자산에 관해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상산하향에 따른 7년간의 고단한 삶은 나를 단련시켰다. 내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무엇이 실재이고 무엇이 실사구시이며 무엇이 군중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평생의 수확이다. 둘째는 상산하향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이다(光明日报 2015/03/12)”. 이때 하방을 통해 그가 경험한 역경과 시련은 지도자로서 현재의 성공적인 정치 경력뿐만 아니라 서민 친화적인 지도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됐던 자산으로 해석된다(Xu 2021, 3).

시진핑 집권 시기 국영 언론은 기층에서의 단련을 강조하는 시진핑의 서사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며 청년층에 전파하는 주요 매개가 된다.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18차 당대회에서는 역대 최초로 기층 농촌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촌관 4명이 당대회 대표에 선출되었는데, 이에 대해 중국공산당 기관지 광명일보(光明日报)는 ‘대학생 촌관 4명이 18차 당대회 대표로 선출된 것은 모든 대학생 촌관에 대한 격려를 넘어 현대 청년에 깨우침을 준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 과거 선호되지 않았던 농촌이나 기층의 일자리는 오늘날 인생을 단련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되었다’며 청년층의 농촌 하방과 기층에서의 단련을 장려하는 사실을 게재하였다(光明日报 2012/12/07). 마찬가지로, 공산당원망 또한 당시 선발된 4명의 당대회 대표 중 한 명인 왕슈위안(王淑媛)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며 “대학생이 기층에 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경험을 쌓고 단련을 하는 대학에 간 것”임을 강조(共产党员网 2013/07/23)함으로써 ‘분투를 통한 기층에서의 단련’이라는 시진핑의 서사를 적극 지원하였다.

한편, 기층에서의 단련을 통한 청년 인재대오 육성 계획은 시진핑의 오랜 구상에 기초한다. 시진핑은 2002년 푸젠성장 재직 당시 집필한

저서 《푸젠성 농촌시장화발전모색 하권(福建农村市场化发展探索 下册)》에서 대학생 촌관 정책이 공식 시행된 2007년으로부터 5년 전 이미 청년 농촌하방 계획에 대한 실행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위 저서 내 ‘푸젠성 농촌인재시장 건설대책 연구(福建农村人才市场建设对策研究)’ 장에서 시진핑은 당시에는 전국 차원에서 정책화되지 않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실험에 머물렀던 ‘대학생 촌관’을 언급하고 있다.

“중, 고, 대 졸업생들이 농촌의 기층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하는 우대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현행 정책을 보완하여 농촌 기층에서 취업할 졸업예정자를 지속적으로 선발하여 농촌 마을마다 한 명의 대학생 촌관(一村一名大学生计划)을 두도록 해야 한다. 대학생 촌관 선발 및 선조생(選調生)⁷⁾ 관리 및 활용을 중시하고 우수한 대학생 촌관을 향진 지도부에 충실히 배치함으로써 향진 간부 대오의 구조를 개선한다(习近平 2002, 296-297).”

위 내용은 시진핑 집권 시기 청년 농촌하방 계획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 첫째, 이는 농촌하방을 통한 청년 인재대오 건설이 시진핑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구상해왔던 의제임을 보여준다. 위에서 시진핑이 언급하고 있는 1촌 1명 대학생 촌관 계획(一村一名大学生计划)은 2008년 17차 3중전회에서 결정되어 2009년 중앙 1호문건에 등장함으로써 비로소 구체화되었는데(中国教育报 2009/07/29), 시진핑은 이를 2002년에 이미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는 기층에서의 분투를 통한 청년 인재대오 건설을 강조하는 시진핑의 청년동원 서사가 주요 표적으로 중국공산당 청년간부를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시진핑은 집권 10여 년 전부터 ‘농촌 하방’

7) 4년제 정규대학(국가중점대학 및 1급 이상의 대학)의 당해 연도 우수 졸업생과 2년 이상 농촌기층 근무를 마친 ‘대학생 촌관’ 중에서 시험을 거쳐 선발한 후 현(縣) 단위 이상의 당정기관에 근무하게 하여 공산당 리더를 양성하는 제도(송용호 2014, 288).

을 통해 기층에서의 단련을 거친 중국공산당 청년 간부대오 건설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6년 후인 2008년 국가부주석 시진핑에 보다 구체화된다. 2008년 대학생 촌관 대표와의 좌담회에서 시진핑은 농촌 기층을 “청년 학생들이 현대 중국사회를 파악하고 중국의 기본적인 국정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교실이자 우리 당이 인재를 배양하고 단련시키는 중요한 진지”(中国政府网 2008/12/23)로 정의하며, 대학생 촌관들이 “용감하게 개척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며 사회주의 신 농촌 건설이라는 위대한 실천 과정에서 시련을 경험하고 견문을 넓히며 재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中国共产党新闻网 2014/12/02). 또한, 이듬해인 2009년에는 “오늘날 젊은 간부 중 다수가 기층에서의 실천, 특히 고생스럽고 복잡한 환경에 대한 단련이 부족하여 복잡한 상황을 관리하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中共中央文献研究室 2011, 297)하며, 청년 간부 역량 부족 문제의 원인을 기층에서의 단련 부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시진핑의 문제의식은 시진핑 집권 시기 19차 당대회 보고에도 반영되어 있다. 보고에서 시진핑은 “기층 최전선과 환경이 열악한 지방에서 젊은 간부를 양성하고 단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실천적 차원에서의 시련을 거친 우수한 젊은 간부를 지속적으로 선발 및 활용한다... 인재들이 변경의 빈곤지역, 소수민족 거주지역, 혁명노구, 기층 최전선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新华网 2017/10/18)고 역설함으로써 기층에서의 단련 경험이 있는 청년간부 육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한편, 기층에서의 단련 경험은 시진핑 집권 시기 단순한 지도의견을 넘어 청년 간부를 대상으로 제시되는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되었다. 2016년 출판된 《중국공산당 청년 간부 양성을 위한 사상 및 실천 연구(中国共产党培养造就青年干部思想与实践研究)》에서는 시진핑 집권 시기 청년 간부 선발에서 발생한 제도적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청년 간부 선발에서 기층에서의 실천과 단련이 점진적으로 제도적인 요구사항이 되었다... 대학 졸업생이 농촌에서 직무를 맡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농촌 마을마다 대학생 촌관을 두는 계획(一村一名大学生计划)을 실행하였다. 대학 졸업생이 농촌에서 근무하도록 장려하고 국가공무원 모집에서 대학생 촌관을 위한 관련 직무를 특별히 설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는 당과 정부기관, 기업단위의 우수한 청년 간부가 기층에서 단련을 거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기층에서의 단련을 간부 심사 및 선발의 중요한 과정이자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邓卓明 2016, 142).”

이는 시진핑 집권 시기 기층에서의 단련 경험이 이론적, 실천적 차원에서 청년 간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즉, 향촌진흥과는 별개로 시진핑이 청년 농촌하방 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또 다른 목적은, 기층에서 단련을 경험하고 분투하는 정신을 통해 고난을 극복한 청년 인재대오, 특히 중국공산당 청년 간부 대오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때 지도자로서 자신의 리더십 발전 토대가 된 '기층에서의 분투'를 현대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시진핑의 청년 동원서사는, 그의 전기적 요인이 시진핑 집권 시기 청년 농촌하방 계획의 시행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V. 결론

시진핑 집권 시기 청년사업의 일환으로서 당국가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 있는 청년 농촌하방 계획은 지도자 시진핑의 형성기 경험이자 국가의 과거 역사적 사건인 상산하향 운동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연결

지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농촌 하방이라는 시진핑의 전기적 요인이 시진핑 집권 시기 중국에서 전개되는 청년 농촌하방 계획에 미친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정치지도자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형성기 경험의 영향력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3장에서는 전기적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시진핑의 하방 관련 서사를 검토함으로써, 하방이라는 전기적 요인이 그의 형성기 정치사회화의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진핑의 전기적 요인은 정치사회화의 결과로서 그가 향촌진흥에 대한 정치적 지향이라는 신념과 분투의 정신이라는 특성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보다 구체적으로, 농촌 군중과의 융화를 통해 형성된 향토의식과 농촌 빈곤에 대한 문제의식은 시진핑이 향촌진흥에 대한 정치적 지향을 형성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한편, 시진핑은 하방에 따른 고난을 자신이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리더십 발전의 계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때 시진핑의 서사에서 분투의 정신이라는 그의 전기적 특성은 하방 시기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자산으로 해석된다.

4장에서는 시진핑 집권 시기 청년 농촌하방 계획과 이를 지원하는 시진핑의 서사에 반영된 전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과거의 역사적 사건인 상산하향 운동을 현대 중국으로 소환하고 관련 담론의 전유를 시도하는 당국가의 지원 아래, 시진핑은 향촌진흥과 청년 인재대오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청년 농촌하방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우선, 향촌진흥을 목표로 전개되는 청년 농촌하방 계획은, 도농 간 자원의 불균형 이동에 대한 시진핑의 문제의식을 기초로 시진핑 2기 이래 본격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한 ‘향촌진흥을 위한 인재진흥’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이때 시진핑의 전기적 요인인 하방 경험은, 그가 향촌진흥 과정에서 농촌으로의 인적자원 투입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향촌진흥을 위한 청년 농촌하방 계획에서 관

찰되는 두 가지 특징은 첫 번째로 청년세대가 향촌진흥을 위한 주요 동원 대상으로 부상하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향촌의사 정책이 대학생 향촌의사 계획으로 전환되는 등, 후진타오 집권 시기와는 달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동원작업이 시진핑 집권 시기 크게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청년 농촌하방 계획이 특정 집단을 겨냥하여 정밀하게 전개되는 전문화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영역과 과학기술 영역 등 전문영역 청년인재의 하방이 강조되고 이것이 정책화되어 시행된다는 점은 분명 후진타오 집권 시기와는 달라진 지점이다. 이때 향촌진흥을 위한 청년 농촌하방 계획을 지원하는 시진핑의 서사는, ‘후회없는 청춘’을 중심으로 농촌에서의 봉사를 강조하는 형태로 청년들을 동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진핑 집권 시기 청년 농촌하방 계획은 향촌진흥과는 별개로 ‘청년 인재대오 건설’이라는 또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다. 향촌진흥을 위한 청년 농촌하방 계획이 ‘청년의 봉사’ 서사를 중심으로 농촌이라는 장소와 향촌진흥이라는 농촌정책적 목표에 초점을 맞췄다면, 청년 인재대오 건설을 목적으로 전개되는 청년동원 전략에는 청년들의 자기 수양을 강조하는 ‘기층에서의 단련’ 서사가 활용되고 있다. 3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층에서의 단련을 통한 고난 극복을 자신의 리더십 발전 과정의 주요 이벤트로 인식하는 시진핑의 서사는, 현대 중국에서 기층에서의 분투를 통해 국가를 위한 인재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는 청년 동원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특히 청년 중에서도 중국공산당 청년 간부를 겨냥하여 주입되고 있으며, 실제로 시진핑 집권 이래 기층에서의 단련 경험은 이론적 차원을 뛰어넘어 간부 선발 과정에서 주요 평정요소로 반영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시진핑 집권 시기 청년 농촌하방 계획은 ‘농촌’에 초점을 맞춘 향촌진흥과 ‘청년’에 초점을 맞춘 인재대오 건설이라는 두 가

지 목적을 중심으로 현대 중국에서 청년세대를 동원하고 있었다. 이때 시진핑은 자신의 전기적 요인인 하방 경험과 이를 통해 형성된 신념과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년 농촌하방 계획을 지원하고 정당화하는 데 조력하고 있다.

기록적인 수준의 청년 실업률과 도농융합 발전 및 기층 청년간부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년 농촌하방 계획은 향후 청년동원 강도와 영역의 측면에서 더욱 전방위적으로 확대 전개될 것이 예상되므로 관련 정책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자신의 전기적 요인에 근거해 청년 농촌하방 계획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시진핑의 서사에 대한 주목은, 정책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시진핑의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청년 농촌하방 계획의 향방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가독성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투 고 일: 2023년 07월 10일

심 사 완 료 일: 2023년 08월 09일

게 재 확 정 일: 2023년 08월 09일

참고문헌

- 만하임, 카를. 이남석 역. 2020. 『세대 문제』. 서울: 책세상.
- 송용호. 2014. “중국 ‘대학생 촌관’ 정책의 문제점과 전망.” 『중국학연구』 67: 283-305.
- 송용호. 2016. “중국대학생촌관과 재중 한국기업의 협력방안 연구.” 『중국연구』 69: 209-240.
- 유은하. 2012. “중국의 반(反) 농촌적인 농촌우대(惠農) 정책: “대학생 촌관(村官)” 정책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제9권 1호: 199-220.
- 주재현. 1998. “권위주의 체제하 한국 국가엘리트의 정책추진 동기와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7권 2호: 289-310.
- 邓卓明(덩취밍). 2016. 『中国共产党培养造就青年干部思想与实践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 丁东(딩둥). 2013. “知青經歷和一代人的價值取向.” 香港: 《二十一世紀》(136): 23-30.
- 习近平(시진핑). 1992. 「摆脱贫困」. 北京: 人民出版社.
- 习近平(시진핑). 2002. 「福建农村市场化发展探索 下册」. 福州: 福建教育出版社.
- 习近平(시진핑). 2018. 「论坚持全面深化改革」.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 叶兴庆(예상칭). 2018. “新时代中国乡村振兴战略论纲.” 改革 1: 65-73.
- 王兆萍(왕자오팡)·羅文映(뤄원잉). 2012. “大學生村官政策建立的理論基礎探析.” 『廣西社會科學』 第200期.
- 张龙(장룡)·赖泽晴(라이저칭). 2021. “乡村人才振兴视角下大学生村官发展困境及行动策略.” 乡村论丛.
- 张海鹏(장하이펑)·郜亮亮(가오량량)·闫坤(옌쿤). 2018. “乡村振兴战略思想的理论渊源, 主要创新和实现路径.” 中国农村经济 11(2)
- 黄祖辉(황쯔후이). 2018. “准确把握中国乡村振兴战略.” 中国农村经济 4(2)
- 中共中央党校中共党史教研部. 2011. 「中国共产党90年知识问答」. 北京:

人民出版社.

中共中央文献研究室. 2011. 「十七大以来重要文献选编(中)」.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党史知识500问》编写组. 2021. 「党史知识500问(1921-2021)」. 北京: 人民出版社.

光明日报. 2012. “关注十八大的大学生村官代表” 12月7日

_____. 2015. “黄土地的儿子” 3月12日

共产党员网. 2013. “人生从乡间起步——记十八大代表中的大学生村官” 7月23日

_____. 2017. ““七年知青经历是习近平总书记治国理政思想的历史起点”” 3月10日

_____. 2017. “从《习近平的七年知青岁月》找寻青春答案” 8月23日

李亚杰. 2008. “习近平：着力构建大学生“村官”工作长效机制”『中国政府网』12月23日

人民网. 2014. “习近平的“扶贫观”：因地制宜“真扶贫，扶真贫”” 10月17日

_____. 2015. “习近平14年前受访谈如何跨入政界：立志当公仆做大事【3】” 1月9日

_____. 2015. “习近平忆延安插队：它教了我做什么” 2月14日

_____. 2019. “中共中央国务院关于坚持农业农村优先发展做好“三农”工作的若干意见” 2月20日

_____. 2021. “总书记写给青年人的11封回信” 6月21日

_____. 2023. “30万青年助力“百千万工程” 2月21日

_____. 2023. “习近平给中国农业大学科技小院的学生回信强调 厚植爱农情怀练就兴农本领 在乡村振兴的大舞台上建功立业 在五四青年节到来之际向全国广大青年致以节日的祝贺” 5月3日

新华网. 2014. “习近平:让青春之花绽放在祖国最需要的地方” 5月3日

- _____. 2015. “习近平回梁家河村看望父老乡亲” 2月14日
- _____. 2017. “追寻习近平总书记的初心·梁家河篇” 3月19日
- _____. 2017. “习近平强调, 坚定不移全面从严治党, 不断提高党的执政能力和领导水平” 10月18日
- _____. 2018. “习近平: 发展是第一要务, 人才是第一资源, 创新是第一动力” 3月7日
- _____. 2019. “《求是》杂志发表习近平总书记重要文章《把乡村振兴战略作为新时代“三农”工作总抓手》” 6月1日
- _____. 2020. “习近平给在首钢医院实习的西藏大学医学院学生的回信” 2月23日
- _____. 2020. “习近平在浙江考察时强调 统筹推进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工作 奋力实现今年经济社会发展目标任务” 4月1日
- _____. 2021. “学习进行时 | 习近平: “我上的是梁家河的高中‘梁家河的大学’” 5月1日
- _____. 2022. “庆祝中国共产主义青年团成立100周年大会在京隆重举行 习近平发表重要讲话” 5月10日
- 新浪网. 2003. “央视《东方时空》省委书记系列专访-浙江省委书记习近平” 11月14日
- _____. 2023. “截至2022年底, 全国返乡入乡创业人员数量累计达1220万人 栽下梧桐树 引回“金凤凰”(乡村振兴, 人才是关键②)” 2月17日
- 许祖华, 李浩. 2018. “陕师大开设《习近平的七年知青岁月》导读必修课”『新华网』5月30日
- 央广网. 2016. “习近平自述文艺心路, 给我们哪些启示?” 10月13日
- 中国共产党新闻网. 2014. “习近平对“村官”的六点看法” 12月2日
- _____. 2015. “西雅图演讲: “习式语言”如何以真诚展示独特魅力” 9月24日
- 中国教育报. 2009. “大学生“村官”政策沿革”7月29日

- Ahlers, Anna L., and Gunter Schubert. 2009. ““Building a new socialist countryside”—only a political slogan?” *Journal of Current Chinese Affairs* 38.4: 35-62.
- Blondel, Jean. 1987. *Political leadership*. London: Sage.
- Bonnin, Michel. 2016. “Restricted, Distorted But Alive: The Memory of the “Lost Generation” of Chinese Educated Youth.” *The China Quarterly* 227: 752-772.
- Brown, Kerry. 2016. *CEO, China*.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 Burns, James MacGregor. 2012. *Leadership*. Open Road Media.
- Dittmer, Lowell. 2020. “On the Sixth Generation: Preliminary Speculations about Chinese Politics after Xi.”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9(122): 253-265.
- Gimpel, James G., J. Celeste Lay, and Jason E. Schuknecht. 2003. *Cultivating Democracy: Civic Environments and Political Socialization in America*.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Goemans, Henk E., Kristian Skrede Gleditsch, and Giacomo Chiozza. 2009. “Introducing Archigos: A Dataset of Political Leaders.” *Journal of Peace Research* 46.2: 269-283.
- Gold, Thomas B. 1991. “Youth and the State.” *The China Quarterly* 127: 594-612.
- Gore, Lance LP. 2020. “Scanning the Post-Xi Jinping Political Landscape: Towards an Analytical Framework of Generational Leadership Change in China.” *China: An International Journal* 18.1: 8-25.
- Greenstein, Fred I. 1970. “A Note on the Ambiguity of “Political Socialization”: Definitions, Criticisms, and Strategies of Inquiry.” *The Journal of Politics* 32.4: 969-978.
- _____. 1975. “The Benevolent Leader Revisited: Children's

- Images of Political Leaders in Three Democrac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9.4: 1371-1398.
- _____. 1992. ““Can Personality and Politics Be Studied Systematically?”” *Political Psychology* : 105-128.
- _____. 2009. *The Presidential Difference: Leadership Style from FDR to Barack Obama*.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riffin, Larry J. 2004. ““Generations and Collective Memory” Revisited: Race, Region, and Memory of Civil Righ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4: 544-557.
- Guo, Baogang. 2010. *China's Quest for Political Legitimacy: the New Equity-Enhancing Politics*. Maryland: Lexington Books.
- Horowitz, Michael, Rose McDermott, and Allan C. Stam. 2005. “Leader Age, Regime Type, and Violent International Relation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9.5: 661-685.
- Horowitz, Michael C., and Allan C. Stam. 2014. “How Prior Military Experience Influences the Future Militarized Behavior of Leaders.” *International Organization* 68.3: 527-559.
- Janson, Annick. 2008. “Extracting Leadership Knowledge from Formative Experiences.” *Leadership* 4.1: 73-94.
- Krcmaric, Daniel, Stephen C. Nelson, and Andrew Roberts. 2020. “Studying Leaders and Elites: The Personal Biography Approach.”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3: 133-151.
- Leites, Nathan Constantin. 1951. *The Operational Code of the Politburo*. New York: McGraw-Hill.
- Levy, Jack S. 2013. “Psychology and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 Li, Cheng. 2009. “China's team of rivals.” *Foreign Policy* (171): 88-93.
- Markus, Gregory B. 1985. *Dynamic Modeling of Cohort Change: The Case of Political Partisanship*. New York: Springer.

- Niemi, Richard G., and Barbara I. Sobieszek. 1977. "Political Socializ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3.1: 209-233.
- Schuman, Howard, and Jacqueline Scott. 1989. "Generations and Collective Mem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 359-381.
- Shamir, Boas, Hava Dayan-Horesh, and Dalya Adler. 2005. "Leading by Biography: Towards a Life-Story Approach to the Study of Leadership." *Leadership* 1.1: 13-29.
- Shamir, Boas. 2005. "Leading Questions: Leaders' Life Stories are Social Reality: A Rejoinder to Gronn." *Leadership* 1.4: 491-500.
- Shamir, Boas, and Galit Eilam. 2005. "'What's Your Story?' A Life-Stories Approach to Authentic Leadership Development." *The leadership quarterly* 16.3: 395-417.
- 't Hart, Paul, and R. A. W. Rhodes. 2014. "Puzzles of Political Leadership." I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Leadership*, edited by R.A.W. Rhodes, Paul 't Har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Xu, Bin. 2021. *Chairman Mao's Children: Generation and the Politics of Memory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hou, Xueguang, and Liren Hou. 1999. "Children of the Cultural Revolution: The State and the Life Cours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2-36.

Abstract

Exploring the Impact of Formative Experiences on Policy Making of the Leaders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nt-down Youth
Program in the Xi Jinping Era and Xi's Sent-down Experience

Yun, Chaeyeong

Academy of Chinese Studie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Xi Jinping's biographical factors on China's Sent-down youth program under Xi's government through biographical narrative analysis. Xi's Sent-down experience as his biographical factor, significantly influenced his political convictions regarding rural revitalization and the cultivation of a spirit of struggle during his process of political socialization. During the Xi Jinping period, the Sent-down youth program has been centered on the goals of rural revitalization and youth training, drawing upon the historical event of the "Up to the Mountains and Down to the Countryside" Movement(上山下乡運動) in China's current context. Xi's political beliefs and distinctive traits, shaped by his biographical factors, are currently employed to endorse and justify his implementation of the Sent-down youth program.

Keywords: political leaders, political socialization, biographical narrative, Sent-down Youth Program, Sent-down Movement